

대형마트 3사 ‘지역은 없다’

특산품 매장 운영도 시늉만

지역경제 외면 갈수록 심화

국내 대형마트 3사가 상품의 70% 이상을 수도권에서 매입하는가 하면 기부금에도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지역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홈플러스의 경우 지역특산물 매장 운영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위 소속 새누리당 이재익 의원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3사의 전체 상품

매입액은 21조821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지역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액수는 10조9040억여원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매입액은 5조115억여원(23.0%)이었다. 두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매입액 비중이 모두 3%대를 밑돌았다.

광주의 매입액은 1078억여원으로 비중이 0.5%에 불과해 대전·울산·세종(모두 0.4%)를 제외하곤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남의 매입액은 2589억여원으로 비중은 1.2%였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상품 구입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서울·경기 지역에 상품 생산업체가 집

중돼 있는 탓도 있지만 대형마트에서 지방 업체에 납품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이들 3사의 지난해 매출액(6707억4800만원) 대비 매입액 비율은 16.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과 대전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또 전남의 경우도 매출(6099억2400만원) 대비 매입 비율이 42.5%로 전국 9개 도 중 가장 저조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상품을 사는 데는 인색했다는 분석이다.

또 대형마트 3사의 지난해 기부금 총액은 185억59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24조

물품구매 비중, 수도권 75% 광주 0.5% 전남 1.2%

매출액 대비 기부금, 홈플러스 0.01% 이마트 0.03%

■ 대형3사 매출액 대비 기부금 실적 (단위:백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출액	기부금	구성비	매출액	기부금	구성비	매출액	기부금	구성비
전국합계	9,772,370	5,686	0.06	?	6,889	0.08	6,110,034	5,983.8	0.10
광주	154,104	53	0.03	199,701	17	0.01	316,943	547.3	0.17
전남	207,517	61	0.03	220,173	21	0.01	182,235	201.5	0.11

5445억원)의 0.07% 수준에 그쳤다. 대형마트 업체별 기부액의 매출 대비 비중은 이마트가 0.05%로 가장 낮았고, 홈플러스 0.08%, 롯데마트 0.10%로 파악됐다.

롯데마트의 경우 광주 0.17%, 전남 0.11%로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이마트(광주 0.03%, 전남 0.

03%)와 홈플러스(광주 0.01%, 전남 0.01%)는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쳤다. 특히 홈플러스는 서울 기부금 비율이 0.46%나 돼 지방에서 돈을 벌어 서울에 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마트(7곳)와 롯데마트(8곳)는 광주·전남지역 모든 점포에서 지역특

■ 대형마트 3사 지역 생산품 매입액 (단위:백만.%)

	점포수	매입액	지역협력사 매입액 구성비
전국합계	390	21,821,368	100.0
서울	63	10,904,029	50.0
광주	11	107,877	0.5
경기	101	5,011,539	23.0
전남	11	258,924	1.2

〈자료:이재익 의원실〉

산물 매장을 운영 중이었으나 홈플러스는 7개 점포 중 3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거대 유통사가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대형마트 동반성장 지수 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장축제 1만명 금남로 퍼레이드

‘추억의 7080 총장축제’ 이름 짜인 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퍼레이드에는 국내외 80개팀, 1만명이 참가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총장축제는 오는 12일 폐막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재정파탄 현실화?...은행서 100억원 긴급 대출

정부 교부금 지급 늦어져...내달부터 직원들 급여 걱정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은행에서 100억원의 빚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 내려보내지 않아 빚어졌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압박은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다. 내년까지 지속되면 광주시교육청은 재정 파탄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

는 우려까지 나온다. 〈관련기사 5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법 해석 논쟁’을 벌이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관련기사 5면〉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사대금과 물품구입비 등 당장 지불해야

할 운용자금이 없어 지난 8일 시중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금’ 100억원을 빌려왔다.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말 현재 광주시교육청에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적 비율은 79.6%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한 비율 87.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1300

억원이 덜 들어온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8%와 비교해도 집행 실적은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다음달부터는 교육 공무원들의 봉급 걱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시 차입금을 가져온 것은 자금운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정치 새 원내대표 우윤근 의원

결선투표서 이종걸 의원 눌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대표에 우윤근(광양·구례) 의원이 선출됐다.

우윤근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 118명(무효 1표)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64표를 득표, 53표를 얻은 이종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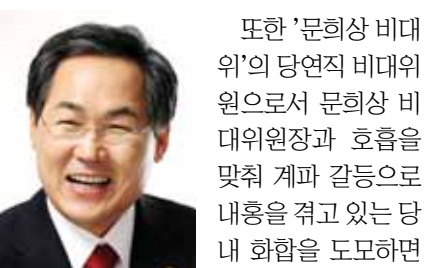
앞서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이종걸 의원이 43표, 우윤근 의원이 42표, 이목희 의원이 33표를 각각 얻었지만 재적 과반(60표) 득표자가 없어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 끝에 우 의원이 범진노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역전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네 번째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으며 중도하차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5월초까지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됐다.

우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로서 ‘미완’으로 끝난 세월호 범 특별법의 후속 협상 마무리 및 정부조작법 처리를 비롯, 국정감사와 예산 및 법안심사 등 원내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또한 ‘문화상 비대위’의 당연직 비대위원으로서 문화상 비

대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계파 갈등으로 내용을 쥐고 있는 당내 회합을 도모하면서 전당대회 준비,

혁신 작업 등 현안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우 의원의 당선이 무엇보다도 범진노 진영의 지원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노·중도 진영의 반발 등을 끌어 안고 당내 화합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우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지내며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거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 일시 : 2014. 10. 19(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관객회침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